

## 교과서에 없는 나의 수업



작년 가을이다. 문학강연 차 부산에 내려갔다가 핸드폰마저 꺼버린 채 두어 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한 일이 있었다. 대합실에 들어서는 순간 귀에 익은 역이 안내방송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 잘못이었다.

‘잠시 후 청량리로 떠나는 무궁화호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경주, 영주, 제천방면으로 여행하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그것을 습벽이라고 하던가.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겨울이면 도지는 스무 살 초반의 습벽은 온도계가 멈추고 나침반이 방위를 설정해주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기우는 가세가 아니라도 그 나이 때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한번쯤 어딘가를 떠돌게 마련이듯 파란 하늘만 보아도 눈물이 나던 때다. 슬퍼할 줄 아는 영혼을 지닌 자가 시를 쓴다고, 그때는 그랬다.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좌석권이 되려 부담스러웠고, 눈보라치는 광장이나 별관에 한 그루 나무로 서보고 싶었다.

마치 낮이 나간 사람마냥 집으로 돌아가려던 발길을 돌린 나는 서둘러 열차에 올랐다. 그때처럼 완행열차는 아니지만 자리를 잡아 앉은 나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제주와 시모노세키를 떠올려보았다. 열다섯 살은 가출이었고 조선의 식민지 한을 찾아 나선 스물일곱 살은 먼 항해였던가. 서른 해 전의 뱃삿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14시간의 긴 항해가 잊히지 않는 것도 이 열차에서 비롯되었으리라. 그 당시 3천 원 남짓한 돈으로 13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또 있었을까. 벌써 스무 해 전의 기억들이지만 3천 원 남짓한 돈으로 표를 끊어 동해 중앙선 열차에 오르면 내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났다. 부산역을 출발한 완행열차가 청량리역에 닿기까지의 13시간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본 적 없는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자정이 넘도록 잠 못 드는 것이 어찌 저 하늘의 달과 별과 동해안의 파도뿐이라. 송정, 일광, 월내역을 지나오는 동안 객실 안으로 스며들어온 검푸른 물결이 이내 잠잠해지면 자정이 기울도록 탄식이 그 뒤를 잇곤 했다. 얼굴에 잔뜩 화장을 덧칠한 댄서는 뱃살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나 영주로 무대를 옮겨가는 중이고, 충무가 고향이라던 향숙이 누나는 다방 레지 다섯 해만에 퇴물로 몰려 제천에 사는 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던가. 첫 휴가를 받아 고향을 찾아가는 해병대 출신이나 공수부대 출신이 열차에 오를 때면 객실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휩싸여 갔다. 휴가를 받아 잠시 세상구경 나온 병사들에게 '시비'라는 단어는 왜 그리도 나약하던지. 표준어라는 것이 참 우스웠다. 그들은 술을 마셔도 술잔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순배가 돌아도 병나발이었다. 그러나 기는 놈 위에 나는 년 있다고, 객실 바닥에 짹짹 침을 내갈기며 승무원한테 대드는 휴가병들의 '곤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은 향숙이 누나였다.

“똥차 타고 가면서 똥똥이나 잡는 것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꼬?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마, 학생은 절대로 저런 날건달들 닮지 말거래이. 사나이란 죽으나 사나 입이 무거워야 한다 아이가. 저런 걸 조동아리라고 하거든.”

삶은 달걀 두 개를 얻어먹었던 향숙이 누나와는 그렇게 바이바이를 했던가. 눈이 뽕뽕 내리는 겨울임에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짜갈짜갈, 사분의 사박자로 꺾을 씹어내던 누나의 얼굴이 아른거려 나

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휴가병들의 한바탕 난동에 다들 자라목에 쥐새끼 눈을 하고 있을 때 애 국가가 울려 퍼지듯 향숙이 누나의 한마디는 얼마나 야무지고 당당했던가.

그 누나의 한마디에 반쯤 꼬리를 내린 휴가병들을 보면서 나는 팔뚝에 문신 두어 개는 새겨 넣어야 입대가 가능하다는 해병대들이 정말이지 우습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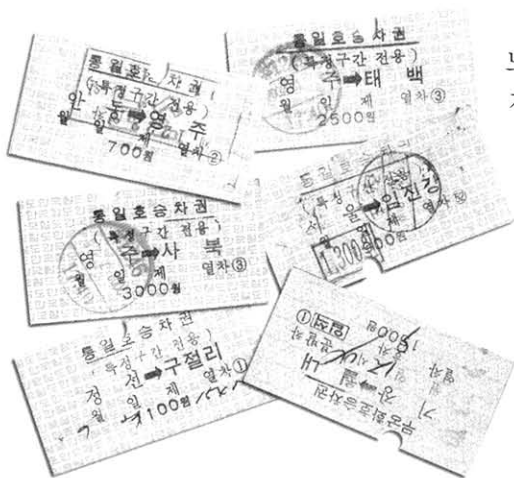
여든 개의 역을 거쳐 오는 동안 상행선 야간열차의 학습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종착역인 청량리역에 도착해서였다. 자그마치 45분이나 연착을 했는데도 누구 한사람 이맛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 통금이 풀리고, 첫 버스 운행시간에 맞도록 연착을 해준 열차에게 되려 고마워하는 눈빛이 역력해 보였다. 이제 어디로 간다? 개찰구를 빠져 나온 나는 어슬렁어슬렁 포장마차로 향했다. 초저녁부터 날이 밝아오도록 하늘을 향한 십자가 불빛들이 꽃처럼 피어 있다지만 지상의 포장마차를 불 밝히는 육십 축 전구만큼 따스운 꽃이 또 있을까.

띄엄띄엄 이어지는 포장마차 불빛을 쫓아 동대문시장에 이르면 조금 전 보아온 포장마차의 불빛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듯했다. 천국에 입성이라도 한 듯 한순간에 눈이 부셔오고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거룩함도 그런 거룩함이 없었다. 아이들이 입는 고리퐁바지를 시작으로 한 때 즐겨 입었던 나팔바지와 향숙이 누나가 입으면 제격일 것 같은 샤넬(?) 블라우스는 얼마나 멋진 조화를 이루었던가.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나도 한번 저렇듯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리라고 다짐을 둔 것도 사실은 동대문상가를 견학하면서였으리라. 푸르스름한 형광등 불빛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알전구의 빛으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환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오고, 쇼와 영화를 동시 상영하는 청계천 노천극장도 들렀으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어제 부산을 출발했던 그 시각에 맞춰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내 발길은 한결 가벼웠다. 받아줄 사람만 있다면 어디 먼 곳으로 엽서라도 한 장 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처럼 그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성을 담은 엽서 한 장 보낼 수 있다면 누구인들 세상이 삭막하다고 탄식하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야 한다고 어금니를 악문 것도 그때 그 열차 덕이었다.

“학생을 보니까 우리 정석이 생각이 더 애절하구먼. 불쌍한 것. 한 해만 더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든



받을 텐데…….”

가출한 자식을 찾으러 서울에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당신. 당신의 역장 무너지는 탄식을 들으면 서도 나는 이렇다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없었다. 더욱이 열다섯 살 봄에 제주도로 가출한 전력을 지니고 있던 터라 당신의 아들 정석이가 밭기까지 했다. 어찌하여 잘 아물었으리라고 여겼던 상처를 긁어 진물 흐르게 한단 말인가. 오래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한 가출사건이 목을 죄어오는지라 나는 그저 이 열차가 어서 단양역에 닿기만을 고대하고 고대할 따름이었다. 아마 시합을 앞둔 아마추어 권투선수가 체중감량을 위해 완행열차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날 밤 단양역은 멀고도 멀었으리라.

당신의 눈물 젖은 애절함에 잠시 놓쳐버린 열차가 바람처럼 경기도를 지나 슬며시 강원도를 거슬러 오를 때였던가. 허리 잘린 지도를 가방에서 꺼내 펼치면 언제고 열차 앞에 경계란 하얗고 부질없어 보였다. 야유회 장소로 그만인 팔당을 지나면 강원도 원주가 발밑이고, 원주에서부터 시작되는 내리막길은 기적을 울리지 않고도 늠름해 보였다. 열차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숨통이 어디에서 트이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터라 영주를 지나 두 다리를 쪽 뺨으면 천년고도의 경주와 울산은 그야말로 한달음이었다.

삼십 분 간격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흥익판매원 아저씨의 수레가 자취를 감춘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물안개가 걷히듯 미명이 걷히는 차창 밖 동해와 함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남창역에서 아낙들이 열차에 오르면 객실통로는 월내, 기장을 지나오는 동안 이미 난전이 펼쳐지곤 했다. 삼등열차의 차창 밖으로는 오색의 깃발을 휘날리며 어선들이 통통통 포구로 귀항을 서둘고, 객실통로는 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오이며 가지, 호박 등속이 고개를 내밀고……。 열차가 부전시장에 닿기도 전에 아낙들은 승객들한테 팔고 받은 돈을 세느라 날 밝아오는 줄을 몰랐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느라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다.

그렇게, 객실통로에서 펼쳐졌던 난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파장을 서둘면 아침은 보란 듯이 푸른 동해를 향해 뼈마디에서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도록 기지개를 폈던가. 2박 3일간의 나의 수업은 그렇게 끝이 났다.

#### 박영희 (시인)

-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 1985년 문학무크 〈民意〉로 등단.
- 시집으로 『조카의 하늘』 『해 뜨는 검은 땅』 『팽이는 서고 싶다』가 있으며, 옥중서관집 『영희가 서로에게』, 시론집 『오늘, 오래된 시집을 읽다』, 평전 『김경숙』을 집필했다.